

늘어나는 마스크 수요 공공시장 판로 확대

경진원, 공공기관 마스크 우선구매 상담회... 내달 7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일상생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확대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마스크 우선구매 상담회'를 실시한다.

27일 경진원에 따르면 이번 상담회는 오프라인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 약 9개 소를 대상으로 기업 및 제품을 소개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후 자유롭게 1:1 상담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지 못한

타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경진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병행 진행돼 참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구매담당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공공시장 진입의 시급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기업 모집은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이뤄지며, 마스크 제조 관련 식약처 인증이 있고 본사와 공장소재지가 도내에 위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경진원은 중소기업

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우선구매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도내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참여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전시·상담회 및 소규모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상담회 활동도 10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웅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내 각 분야별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발전에 힘을 예견"이라며 "우선구매 확대를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유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 기술규제 혁신 '맞손' | 중기중앙회·국가기술표준원, 협약 체결

기업 기술규제 애로 건의 상시 창구 마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규제 관련 애로사항 청취 ▲전문적인 수요조사·연구 및 기술규제 개선과제 도출 ▲활동 참여 촉진 등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로 인해 중기중앙회와 관련된 640여 개 조합 및 협회·단체에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 애로를 건의할 수 있

는 상시적인 창구가 마련되고, 전문적인 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로 이행성과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현장 조사'와 '품목별 협의체 운영' 등 현장감 있는 접근으로 기업현장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협약 후에는 실제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10개 품목과 관련한 13개 조합의 담당자들과 함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원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이 가장 크게 느끼는 기술규

제는 바로 인증이다"라며 "인증은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고자 확대하는 것인데, 인증비용이나 효용이 판매수익보다 크지 않다면 중소기업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국표원 역시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부담 경감을 위해 '기술규제개혁사업'을 설치·운영해 3년 주기로 규제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수시로 기업애로를 발굴해 국조실과 함께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최대희 기자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으시다면?

전북중기청, 지역가치 창업가 활성화 지원 참여 창업기업 모집
예비창업자 최대 1000만원 지원... 모집 기한은 3월 3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지역가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으로 해당 사업은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해 모집에도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 팀을 선정하는데 252개 팀이 접수해 지역가치 혁신창업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2022년에도 선정된 280개 팀이 지난 한 해 동안 매출액 535억

원, 신규 고용 502명, 투자유치 174억 원을 달성해 지역가치 창업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올해 '지역가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지원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지원의 세부 내용은 2022년 상반기 중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화자금의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며 전국 총 170개 팀을 선정한다.

예비창업자는 최대 1,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기창업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게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가치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

고 지역 기반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를 확대 지원한다.

협업과제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융합을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가치 창업 7대 분야별 협업과제'와 지역가치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고도화와 판로 지원·확보를 위한 '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가 간 협업'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한편 지역가치 창업 7대 분야는 ▲거점브랜드 ▲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지역문화활동 ▲지역특화관광 ▲디지털문화체험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달 27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케이(K)-창업기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창업기업은 27일부터 3월 3일 오후 6시까지 케이(K)-창업기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대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조경수 생산자 역량 증대'

정읍산림조합서 '조경수 작목회 창립총회' 개최

정읍산림조합(조합장 장학수)에서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조경수 재배 임업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경수 번식 및 유통조경수 재배 전문교육과 '정읍 조경수 작목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장학수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읍은 남방·북방 한계선 지역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조경수 생산지로서 정읍산림조합원 중에 조경수를 생산하고 있는 조합원은 많이 있지만 일부 대면적 재배하는 조합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조경수 판로에 어려움이 많아서 어렵게 생산한 조경수를 제거하거나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투자금액도 건지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처해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읍산림조합에서 조경수 작목회를 구성해 조경수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심진지 검학을 통해 생산자의 역량을 증대시킬 계획이며, 나아가 정읍산림조합에서 관내 조경수 및 묘목 판매를 대행하거나 판로를 앞선해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도에 조합 홈페이지에 조경수 직거래

/정읍=김대환기자

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설 맞아떡국떡 나눔 행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지사장 이강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외계층 40가정에 떡국 떡과 사골육수, 만두 나눔 행사를 가졌다.

남원순창지사는 현행과 더불어 연중 전기안전 비대면 영상교육, 농촌일손 돕기, 벽화그리기, 이웃사랑 실천 성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왔으며, 복지사각지대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남원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진행했다.

이강수 지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온기 나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전 김제, 나눔 꾸러미 전달

한국전력공사 김제전력지사(지사장 김종선)는 지난 28일 설명절을 앞두고 김제사회복지관을 찾아 사랑가득 나눔 꾸러미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설을 앞두고 김제사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40세대에 떡국떡을 비롯한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여 이웃과 정을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한전 김제지사 김종선 지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설만큼은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 김제지사는 해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물품 기부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모범을 보여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태기 기자



응급환자 대비
당직 의사 지정

전북대병원,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 추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설날을 맞아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하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27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연휴기간 동안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당직근무 의사 지정운영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진간 비상연락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무분별한 방문으로 환자는 물론 방문간客的의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상주 보호자 1인을 제외하고 방문간을 전면 제한한다.

아울러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날인 2월 1일 오전 8시부터 2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동안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유희철 병원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도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등 민전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문 면회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제=최대희 기자

분할연금 혼인 기간

분할 비율 신고기한 정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및 분할 비율 신고와 관련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나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 그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이달 27일 이후 분할연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

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 또는 연금 분할 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분할연금의 지급청구 후 혼인 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끝으로 27일 전 이미 분할연금이 청구되고 그 후에 혼인 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27일부터 90일의 신고 기한을 적용한다. /최대희 기자

우리 술·명절음식 술상 조합 최적은?

'감홍로'엔 '가래떡 쇠고기 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내면서 명절 분위기도 살릴 수 있는 우리 술과 명절 별미를 추천했다.

27일 농진청이 추천하는 명절에 어울리는 술상 조합으로는 우선 은은한 한약재와 깊은 알코올 향이 감당되면서 감칠맛이 나는 전통 증류주 '감홍로'와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 '가래떡 쇠고기 찜'이 어울린다. 파주에서 생산되는 감홍로는 국산 쌀과 누룩, 물로 빚어 두 번 증류한 뒤 7가지 약재를 그대로 우려내어 숙성시킨다. 따뜻한 물을 약간 넣거나 데워 마시면 한약재 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다.

또한 약간의 과일 향, 쌀에서 우러나는 깊은 맛, 목 넘김이 부드러운 전통 탁주 '백년향'은 토란대, 달걀 물을 묻혀 노릇하게 기름에 구운 '토란대 채소 산적'과 맛의 조화를 이룬다. 여주에서 생산되는 백년향은 "음식디방"에 기록된 순창주 양조 방법을 재현해 빚은 술로, 단맛은 거의 없고 요구르트와 꽃 향을 풍긴다. 특히 쌀에서 나오는 특유의 풍미가 뛰어나다.

아울러 쌀로 빚어 짓기 부드러운 목 넘김이 시원한 증류주 '미르 라이트'에는 고소하고 결착한 국물 맛이 일품인 '고사리 들깨탕'을 곁들인다. 용인에서 생산되는 미르 라이트는 100% 용인 백옥 쌀과 증류주 전용 효



전통 증류주 감홍로

모 N9를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청주를 빚은 후 감암 증류해 과일 향이 풍부하다. 취함에 맞춰 알코올 도수(17% 40%)를 선택해 마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약재에서 우러나는 깊은 향과 맑고 깔끔한 맛의 약주 '신선주'에는 해산물인 새우와 진한 향의 깻잎이 들어간 '깻잎 새우전'을 추천한다. 청주에서 생산되는 신선주는 국내산 참쌀과 12가지 생약재를 함께 발효시킨 약주이다. 기분 좋은 향과 풍미,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이고, 약간의 산미 뒤끝에 약재 특유의 달콤한 맛이 남는다.

농진청 농식품지원부 김중철 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해처럼 이동 없이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명절 분위기는 덜하겠지만 다양한 우리 술과 그에 어울리는 명절 별미로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